



민권의 순결



장 용 환

백암령

백암령 산줄기는
아슬한 산줄기
천만의 봉우리
나란히 섰어요

달음치던 차들도
영기영기 기여가듯
넘어서는 산줄기

원수님의 신년사
받아안은 오빠 누나
이 산줄기 길들이며
부글부글 끓어요

어찌나 가파롭고
높고높은지
쌀함박의 주름같이
차길을 닦은 령



착암기 뚜룩뚜룩
발파소리 짜르릉
압록강이 흘러들
물길굴을 뚫어가요

바람을 일으키며

가림천이 주알주알

가림천이 주알주알
어디로 흘러가나
압록강과 얼싸안고
어디로 흘러가나

×

형님 누나 뚫어놓은
수백여리 물길따라
말을 탄 무사같이
어딜 향해 돌진하나

단천전기 용을 쓰라
사품치며 고패치지

서해로 흘러가던
걸음을 멈추고서
물머리 들고서
기쁨넘쳐 흘러가나

원수님의 높은 뜻
물결에 담아실고

보천보에 타오르던
밤하늘의 그 불길
강성국가 화불되라
전기되어 달음치지

봄이 사는 집

입김만 나와도
서리꽃이 피고요
물기만 돌아도
문손잡이에 떡

눈보라 길길이
날뛰는 백암벌에
아지랑이 아물아물
봄이 사는 집 생겼어요

돌격대 형님누나
봄형님 봄누나
밤낮이 따로없이
언제를 쌓아요

낮도 잊고 밤도 잊고
《적기가》를 부르며
다짐기 우릉우릉
억센 팔뚝 휘둘러요



비닐박막 창밖에는
눈보라가 태질해도
봄이 사는 이 집에선
언제 우뚝 솟구쳐요

폭설

그 몇번 덮었나요
사정없는 폭설이
한순간에 돌격대집
묻어버리였어요

돌격대 형님누나
그 마음 떠보는듯
전투장 가는 길도
다 막아놓았어요

먹장같은 구름떼
제가 심술 부리고도
숨죽은듯 고요한
골짜기를 보는 순간

폭설을 헤집고
새움이 움트나요
형님누나 손들이
겨끔내기로 솟구쳤지

잠잠하던 골짜기에
봄우뢰소리인가
하하하 호호호
랑만의 웃음소리

겪을수 없었어요
그 어떤 폭설도
완공의 날 앞당기는
형님누나 그 신념을

단천의 숨결

단천의 숨결은
그 어디서 시작되나
가림천물결타고
세차게 고통치지

투사들이 지녔던
백두의 혁명정신

피줄처럼 타고서
전기처럼 흐르지

×

흘러흘러 압록강과
손잡은 가림천

서해로 가지 않고
동해로 달음치나

원수님의 강성조선
높은 뜻 꽃피우려
드세찬 숨결되어
단천땅을 뒤흔들지